

부산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9000명 육박... 55% ↑

고령운전자 면허 보유 매년 증가
자진 반납자에 교통카드 10만원
내년에도 다양한 홍보활동 계획

올해 부산시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건수가 9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실적은 63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02명에 비해 55%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는 지난해 연간 반납자 7147명을 넘어 8000명이 넘는 것이 확실시 되며 9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9년의 9846명에 이은 두 번째 실적이다.

부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자발적 반납



부산시청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2년 전부터다.

실적은 첫해인 2018년에 5280명이 반납 후 2019년에 9846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0년 6822명, 2021년 7147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 해 다시

9000명 대를 회복할 전망이다.

시는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사람에게 '하나로 교통카드' 10만원을 지급한다. 또 원하는 사람에게는 목욕탕 등 2100여가맹점을 확보하고 일정한 할인 혜택을 주는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어르신들의 자진 반납 건수가 늘어난 것은 포스터, 영상 등을 통해 예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한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내년에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전국 7대 대도시 중 가장 먼저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를 이미 지난해 11월(20.3%·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진입했으며 지금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 탓에 시와 경찰청이 해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시행해

전체 면허 소지자 중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중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면허 보유 비율은 2018년 10.6%에서 2019년 11.4%, 2020년 12.4%, 2021년 13.4%로 해마다 1%p씩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중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건수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4.1%, 2019년 14.5%, 2020년 15.2%, 2021년 17.1%를 기록했다.

부산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019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갱신기간과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등 고령운전자에 대한 제도 변화도 자진반납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대중교통 소외 주민 대상 1000원 '경주행복택시' 인기

경주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복지를 위해 도입한 '경주행복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 및 도농복합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주시가 2019년 3월부터 도입한 제도다.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은 시간에 상관없이 1000원만 내면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로 이동할 수 있다.

경주행복택시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3년 7개월 동안 총 10만 3125회의 운행 실적을 기록했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밀양시

49억 들여 자연재해 대비 만전

밀양시는 무안면 양효리에 위치한 양효소 하천 정비가 완료돼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과거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하천단면 부족과 제내지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시는 도비 23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해 양효천 2.1km 구간에 제방 축제, 호안정비, 보 개량, 교량 재가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2019년 착공해 올해 11월 준공했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

전남도, 산림청 '숲과 녹지조성 사업' 우수기관 입증

탄소중립 기후대응 도시숲 내년 전국 최대 사업량 확보

전라남도가 2022년 산림청 주관 생활권 숲 조성 등 녹지조성 평가 4개 모든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숲과 녹지조성 사업 선도 기관임을 입증했다.

산림청 주관으로 전국 공모한 녹색도시 우수사례에 광양시 미세먼지 차단숲이 최우수상을, 학교숲 우수사례에 순천시 인안초등학교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또 제9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로 장성군 무궁화 동산이 최우수상, 진도군 무궁화 가로수길이 장려

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8월 전남도가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대상을 차지해 무궁화 분화 육성과 품종관리의 높은 수준을 인정받았다.

전남도가 올해 받은 우수한 평가는 2023년 국비 예산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탄소중립 기후대응 도시숲은 2019년 시범사업부터 시작해 2023년 전국 최대 사업량을 확보했다.

또 학교숲은 여수시 등 12개소에 학생들의 자연학습공간과 학생·지역 주민들의 녹색쉼터로 조성된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순천시와 광양시는 다음 달 도시숲 정원정책 워크숍에서 시상과 함께 포상



광양 기후대응 도시숲.

/전남도청

금을 받게 되며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도시숲 담당자 현장 실무교육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18개 품목 선정

전남도가 농수축산물과 관광상품 등 '118개 품목'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전남도는 '전라남도 고향사랑기부제 금 모금·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에 맞춰 최근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답례품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답례품목 심사는 지역 대표성, 시·군 간 형평성, 답례품의 매력도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선정된 답례품은 남도장터상품권,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여수갭김치, 나주배, 영광굴비 등 22개 시·군 특산품을 시·군 당 5개 품목씩 선정해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 폭을 넓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선정된 답례품 118개 품목은 전남 농수축산물을 비롯해 관광상품, 체험 상품으로 구성했다.

선정된 답례품 목록은 전남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대구·경북 농산물 상생장터 화합 한마당' 개최

도농 상생 교류 확대

경상북도는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대구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과 도농상생 교류 확대 강화를 위해 「2022 농산물 상생장터 화합 한마당」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최고의 우수농산물 산지인 경북과 대구도 소비자인 대구를 연결한 농산물 상생장터로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화합 한마당으로 진행했다. 또 경북도와 대구시가 후원하고 재대구경북도민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경북과 대구는 원래 한뿌리이자 상생과 화합으로 가야할 동반자라는 것을 알리고자 2019년도부터 열고 있다.

행사장에 마련된 40여개 부스에서 각종 제철 신선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등 대구·경북의 다양한 농특산물 판매전이 펼쳐졌다. 특히,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체험관 운영과 나눔 행



이철우지사가 '2022 농산물 상생장터 화합 한마당' 농특산물 판매점을 돌아보고 있다.

사뿐만 아니라 지역 농특산물 쇼핑물 사이소 홍보관, 대구·경북 상생장터 홍보관, 장터맛집 등 다채로운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최병일 재대구경북도민회장은 "이번 농산물 상생장터 화합 한마당 행사를 계기로 시도민회 향우회원이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대사로 역할을 다해 관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

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고향사랑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와 대구시는 오랜 기간 문화를 함께 공유해 온 한 뿌리로 이번 행사를 통해 시도민이 화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전남도

친환경 한우 홍콩 수출 재개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1년여 간 중단됐던 전남 친환경 명품 한우고기 홍콩 수출이 12월부터 재개된다.

전남도는 최근 농협경제지주 나주축산물공판장이 전남 1호로 홍콩 정부로부터 한우고기 수출 전문 도축장으로 재등록돼 전남의 친환경 명품 한우 홍콩수출길이 재개됐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는 한우고기 수출도축장이 본격 재가동됨에 따라 도내 한우 광역 명품 브랜드인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1차 수출을 재개한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울릉교육지원청

울릉초 개교 114주년 행사 성료

울릉초등학교는 지난 11월 18일 개교 114주년을 맞아 전교생이 다목적실에 모여 개교 기념일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이 학교의 개교기념일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

오정선 교장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울릉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훌륭한 선배님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바르게', '튼튼하게', '슬기롭게'라는 교훈처럼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나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릉(경북)=이상호 기자